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배포 : 2024년 9월 30일(월)

윤석열 대통령, 슬로바키아 총리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9.30)

- 「한-슬로바키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 -
- 교역 · 투자, 국방 · 방산, 에너지 등 핵심 분야 협력 확대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9/30, 월)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 슬로바키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양 정상은 1993년 외교 관계 수립 이래 30년 이상 꾸준히 발전해 온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양국 협력을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구체 비전을 담은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 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슬로바키아와의 관계 격상으로 우리나라는 비셰그라드 그룹 4개국(V4: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모두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됐습니다.

대통령은 한국과 슬로바키아 간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 가전 분야 등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고무적이라면서,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수립에 관한 MOU」가 양국 간 무역,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촉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2022년 9월 체결된 「한-슬로바키아 국방 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국 간 국방과 방산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하고, 이에 대한 피초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피초 총리는 작년 10월 취임한 후 인도태평양 지역의 첫 방문 국가로 한국을 찾은 것은, 그만큼 슬로바키아 정부가 한국과의 협력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과 피초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된 「포괄적 에너지 협력 MOU」를 토대로 양국 간 원자력, 재생에너지, 수소를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양 정상은 한반도는 물론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위와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강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피초 총리는 슬로바키아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위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을 위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양국 정상 임석 하 서명 문서(총 2건)

-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슬로바키아 경제부 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수립에 관한 양해각서」^(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슬) 경제부 장관)
-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슬로바키아 경제부 간 「포괄적 에너지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슬) 경제부 장관) <끝>